



4면

전주시, 4대 중단에
코로나19 방역 협조 요청

전주매일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음 7월 3일) 제260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도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강화할 것”

정책방향 수립... 131억원 들여 의료시스템 보강 음압격리 53병상 추가 확보 · 역학조사관 증원도 군산 · 남원의료원 시설확충 등 쾌적한 환경 조성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는 가운데 전북도가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의료취약지 필수 의료 제공 등을 위해 공공의료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20일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과 인력 확충을 비롯해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의료 제공 등의 의료시스템 보강을 골자로 한 공공의료 강화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새롭게 수립한 공공의료 강화 정책 방향을 토대로 전북도는 중증·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적정 치료와 치명률 최소화를 위해 131억원의 예산을 투입, 음압격리병상을 53병상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치료와 교육을 받는 병상을 말한다. 또 요양병원이 없는 진안, 장수, 무주 지역에는 동부권 공립요양병원이 건립된다. 총사업비 136.5억원을 투입해 130병상 규모로 2023년 무주군에 개원할 동부권 공립요양병원은 의료취약지 노인인구의 의료, 요양서비스 제공과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킬 전망이다.

이와함께 지역거점공공병원인 군산, 남원의료원의 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군산의료원은 220억원, 5층 규모의 급성기 진료시설을 2022년까지 별도 증축해 응급의료센터, 수술실, 병동 보강으로 쾌적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남원의료원은 80억원, 40세대의 의료인력 숙소를 2021년까지 증축해 의료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양질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이직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공공의료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의료서비스의 의료기관-지역사회 연계와 협력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도는 지역에 맞는 공공보건의료정책을 발굴해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술적 전문 지원조직인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2022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간 지역사회 내에서 필수 의료의 연계, 제공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전북대학교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을 지정했다. 도내 5개지역 진료권 중 3개지역 진료권(전주권, 익산권, 정읍권)은 2022년까지 지정해 2차 의료서비스와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등 전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지역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해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대응과 지역격차 없는 전북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주시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무형문화재 지원사업을 연계해 오는 2023년까지 총 382억원을 투입해 동서학동 국립무형유산원 서편 부지에 행복주택과 전수교육관 등을 갖춘 '전주 무형유산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전주에 예술인 행복주택 들어선다

전주시 · 국토부 · 문화재청 · LH, 2023년까지 무형유산 복합문화시설 건립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무형문화재를 보유한 전주시에 무형유산 보유자와 전승자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승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예술인 행복주택이 건립된다. 또한 무형문화재의 전승을 돕는 전수교육관과 무형문화재 전시·공연을 위한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전주시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무형문화재 지원사업을 연계해 오는 2023년까지 총 382억원을 투입해 동서학동 국립무형유산원 서편 부지에 행복주택과 전수교육관 등을 갖춘 '전주 무형유산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전주에 무형유산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서게 된 것은 국립무형유산원이 위치한 동서학동을 중심으로 전주시

역에 총 43건의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와 전북도 지정 무형문화재, 수많은 전수자가 거주하기 때문이다.

전주 무형유산 복합문화시설은 크게 예술인 주택과 공방, 전시관, 교육관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예술인 주택의 경우,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수자 등 문화예술인과 인근 대학생의 전승활동과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비 부담이 적은 총 96호의 행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안정된 환경에서 전통문화의 보전 및 계승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을 위한 시설로 구축된다.

이외에도 ▲창작활동 지원 공간 ▲전시·사무 공간 ▲판매시설 ▲무형유산 소재 정원 ▲실의 작업공간 ▲

옥외 전시 ▲아외무대 등이 갖춰지게 된다.

시는 무형유산 복합문화시설이 조성되면 전통문화의 보전 및 계승에 큰 역할을 맡는 것은 물론 지역의 문화 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국립무형유산원과 인근 전주한옥마을, 서학예술마을과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거점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와 문화재청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최명규 전주시 부시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정재숙 문화재청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왕기석 전라북도무형문화재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 뉴딜

전북도, 승진 내정자 발표

전북도가 20일 8월 수시인사 승진 내정자 명단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파견 등에 따라 단행된 이번 승진인사 명단을 살펴보면 국장급 1명, 과장급 1명, 팀장급 1명, 6급 이하 33명 등 총 36명이다. <과장급·팀장급 명단 14명>

국장급 승진 내정자인 전대식 총무과장(56·사진)은 익산 출신으로 정부 기획과장, 김제시 부시장, 지역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 70대 여성 등 4명 확진

전북도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새 4명이 늘었다. 이로써 지역 확진자는 총 61명으로 증가했다.

20일 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익산 70대 여자(58번)와 전주 30대 남자(59번), 전주 40대 여자(60번), 전주 30대 여자(61번)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추가된 4명은 타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이 감염원으로 지목됐다. /유호상 기자

사업과 무형문화재 지원사업의 상호연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양 부처는 ▲사업 간 연계 강화하기 위한 각 사업지 연계 지원 ▲전주와 밀양에 무형문화재 특화 도시재생을 위한 연계사업 추진 ▲연계사업의 효율적 추진 위한 도시재생 및 무형문화재 관계자 협의체 운영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최라기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무형문화재를 보유한 전통문화로 꽃피운 도시로,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도시재생을 전국에서 가장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무형문화재를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남원으로 떠나는 여행

2020 남원시 유튜브 영상 공모전

접수기간
2020. 11. 2(월) ~ 11월. 8(일)

공모내용
남원의 관광지, 자연 경관, 농거리, 축제, 맛집, 꽃길 등 남원을 여행지로 소개할 수 있는 정보에 적합한 영상물 형식의 재미가 없는 유튜브 영상물 단,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은 배제

결과발표
2020. 11. 27.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작품심사
심사위원 10명 선정 후 국민심사 (국민심사 50% + 심사위원 50%)
최종선정: 심사위원 점수 50% + 국민심사 점수 50%

시상내역

구분	작품수	시상금	비고
대상	1	3,000천원	
최우수상	2	각 1,500천원	
우수상	2	각 1,000천원	상금
합선	5	각 300천원	

제출규격
영상물: 3분 이내 MP4 영상 파일 1,920x1,080 pixels
※ 동영상은 유튜브 등 인터넷에 업로드된 영상물은 제출 불가

제출방법
참가신청서 1부, 촬영서 1부, 동영상 1편 제출
이메일 (namwon@korea.net)

문의처
남원시청 홍보전산과 홍보팀 ☎063-620-6044
주거도시개발사업 및 신청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